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문학회 유치 및 재능기부, 수과학 융합 축제를 통한 지식 평등화와 전문지식의 대중화 및 인구 유입 정책 제시

2016. 10. 22

정채윤, 주양현, 최하윤, 이호성, 조윤상, 최성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문학회 유치 및 재능기부, 수과학 융합 축제를 통한 지식 평등화와 전문지식의 대중화 및 인구 유입 정책 제시

정채윤, 주양현, 최하윤, 이호성, 조운상, 최성준

## 1. 탐사의 필요성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토의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종시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았다. 이에 결론은 세종시에 아직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인구유치를 위한 뚜렷한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건설 시 수도의 정부청사를 일부 이전함으로써 정부청사 관련자들 및 그 가족들의 세종시로의 이주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대부분 혼자 세종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통근을 하고 있다. 세종시로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며, 이에 대처할 특별한 산업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은 주로 주변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호본래 계획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인구 유치를 위해 진행했던 정책들을 참고한 결과, 교육의 강화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 나. 대한민국 교육 사회의 문제점 분석

다른 도시의 교육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세종시 경제 및 사회 구조에 적절하지 않으며, 신도시에 적용하기에 우리나라 교육은 옛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부모님의 자본에 따라 교육 수준이 양극화되고 있으며, 교양보다는 시험 및 입시를 위한 단순 암기 주입식 교육이 지배적이며,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이 더 이상 학습을 하려 들지 않아 전문가들과 일반인 사이의 괴리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사회의 현실이다.

###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

세종시의 많은 정체성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성군적 면모를 참고하여, 위에 열거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법을 찾아 세종시에 적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세종대왕의 존경받는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훈민정음의 창제가 제일로 꼽힌다. 세종대왕은 읽고 쓰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직접 글자를 만드셨으며, 그로 인하여 읽고 쓰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줄었으며 이는 당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피지배층들과 지배층의 권력을 나누는 역사의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다.

이 업적에 착안하여, 세종시 또한 품격 있는 도시 및 교육도시라는 목표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고급 지식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지식을 쉽게 풀어내어 무료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에 흥미를 갖게 되면, 세종시민의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식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노동을 가중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한 것처럼, 세종시의 교육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본교 학생들 등)이 시민들을 교육하는 재능기부를 하자고 생각하였다. 또한 전문지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축제를 기획해보기로 하였다. 이런 정책으로 세종시가 고급 공교육에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다면, 한국 사회의 교육열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예측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구 유치 실패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종시의 본래 의의인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종시가 높은 수준의 지식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접근 장벽이 높았던 높은 수준의 지식들을 재가공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함에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세종시가 학술문화, 지성인 교류의 중심지로서 품격 있는 지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술 교류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유아기부터 과학적 사고를 길러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계층(및 일반인들)의 지식교류 네트워크가 세종시에서 구축되게 하여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의 훌륭한 물질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네트워크 접근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2. 탐사 과정

### 가. 탐사 경로

세종이라는 이름의 뜻의 해석에서부터 본 탐사를 시작하였다. 세종대왕께서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글을 창제하였다. 본 탐사에서는 이를 계승한 장소인 국립 세종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세종 도서관에서는 일반 서적부터 어린이, 그리고 정책 관련 서적들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어 세종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 가능하다.

### 나. 자료 조사

## 1) 1) 세종시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4가지 요인으로 환경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정책 수립 시 등의 상황에서 환경 분석에 쓰인다.

## 2) 세종시 교육 환경 실태 분석

세종시 교육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당 학급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첨단의 학교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취학자녀를 둔 자녀를 둔 세대가 대거 입주하면서 취학 예상 학생 수의 120%로 계획했던 학급 수도 부족해 지게 되었다. 한솔초등학교의 사례를 보자. 한 반의 정원(25명)보다 많은 수의 학생(30명)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인근 한솔고등학교의 여분의 교실까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점은 초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의 대학은 중심에서 멀 뿐만 아니라 모두 사립 대학교이고 국립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2014년 중심지역에 이전했고,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은 카이스트와 고려대 일부 학과의 대학원의 이주를 협의 중이며, 여러 대학의 공동 캠퍼스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지 않았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 교육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세종시의 상황은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세종시는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기초학력 미달은 전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보통 이상의 학력 우수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 중학교 과정은 교과 과정 12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처럼 낮은 학구열은 수도권 의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내려오길 꺼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여 독자적 재정 능력으로서 교육청 조직과 예산을 감당해야 하지만, 아직 세종시 자체의 규모가 작아 인적 및 물적 기반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의존도가 크며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신설 도시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타 시도로부터 우수 인력 확보가 문제가 있

다. 또한 학교 밖 학습 자원들이 될 수 있는 복지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생활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 3) 교육정책 관련 지역발전 사례

국내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양산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양산시는 아낌없는 교육 투자로 2014~2016년 3년간 경남에서 인구 유입 1위를 하였다. 양산시가 교육에 투자한 돈은 시 예산의 약 5%인 145억이다. 양산시는 이 자금으로 수학체험센터 등의 교육 관련 시설을 유치하거나 성적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4500여명에게 37억원의 장학금으로 주는 등 교육 투자에 힘썼다. 그 결과 순이동 인구(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인구수)가 2013년 7558명, 2014년 1만1022명 2015년 7182명으로 3년 연속 경남 지역 인구 유입 1위를 달성했다.

또 다른 국내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1번지, 서울시 강남구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서울시는 강북의 심각한 인구 밀집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당시 서울시장 구자춘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기로 하였고, 서울을 3핵화 - 사대문 안, 여의도와 영등포, 강남-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강남은 이제 막 서울로 편입된, 매우 낙후된 지대였기 때문에 강남 개발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이에 구자춘은 한국의 교육열을 역이용하여, 사대문 안에 몰려 있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1976년 경기고등학교가 가장 처음 이전하였고, 이후 휘문고, 숙명여중 및 숙명여고, 서울고, 중동고, 경기여고 등이 이전하였다. 때마침 서울은 학군제(졸업한 중학교와 같은 학군 내의 고교로만 진학 가능한 제도)가 실시되었고,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명문고 진학을 위해 강남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강남구와 서초구는 현재 '8학군'의 핵심을 이루고 현재의 강남이 탄생하게 되었다.

핀란드는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경쟁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 교육경쟁력은 세계 1위로 핀란드의 식민지 역사와 부족한 천연자원을 고려하면 교육과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엄청난 노력의 성과이다. 핀란드의 교육이념은 ' 모든 아이들의 재능이 소중하다 ' 로, 잘하는 학생에게 추가 교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뒤처지는 학생에게 특별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에 있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끈기있게 교육한다. 그 결과,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학업성취도 편차가 작은 나라로 꼽힌다. 또한 핀란드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즉, 즐겁게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욱 품격있는 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남한산초등학교는 폐교위기의 학교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힘을 합쳐 되살린 자율적인 혁신학교이다. 주변 환경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활동과, 활성화된 방과후 학교 학습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교육방식 때문에 자율적 혁신학교의 롤 모델이 되었고, 성남 등 타지에서 학생이 유입되면서 주변의 분양가 또한 급상승하여 분양할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훌륭한 교육환경이 지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4) 전문지식의 대중화 실태에 관한 조사

지식 대중화와 전문용어(이현주, 2016)를 통해 전문집단과 비전문집단 사이의 지식의 격차와 접근 장벽은 전문집단 내에서 은어와 같이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주 요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일반 대중이 이해 가능하도록 해설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으로 해석했다. ‘대중화 담화’는 전문용어나 전문가들의 은어를 제거한 후 쉬운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다시 쓰기’ 등의 지식 전달 전략이 모든 과학에 숨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용어가 제거된 순화된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용어를 이해시키는 인지적 절차로서 대중화 담화를 상징하고 이를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메타 언어적 기제를 살펴보고, 담화와 상호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전문용어로서의 새로운 관점과 정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전문용어의 측면에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용어의 난립은 그 학문분야에서의 지식 체계와 소통에 치명적이라는 입장이 있고, 그러나 지식 대중화 담화 안에서 발견되는 전문용어는 그것이 인식론적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지식의 핵심 단위이며, 그것의 풀이는 전문적 개념 이해의 다양화, 표현과 사고방식의 복수성이라는 측면으로 보고자 하였다.

#### 5) 칸아카데미와 TED Talks의 사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에게 암 치료제를 발견할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고, 뉴기니에 사는 어부의 아들이 해양 보존에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통찰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건 상 이 아이들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제적 위치, 인종, 국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탄생했다. 바로 칸아카데미이다. 홈페이지에 전자칠판으로 강의하는 동영상 업로드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학습하는 형식이다. 설립자 살만 칸의 이러한 정신은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학습을 돕고 인생을 바꾸어주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살만 칸은 상황 파악은 커녕 경제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조차 벅찼던 일반인들을 위해 이를 설명하는 강의를 올렸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고 CNN 생중계에도 초대되었다. 이 일에 대해 살만 칸은, 세상은 더욱 변화하고 복잡화되고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인이 되면 교육이 멈추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TED는 “Ideas worth spreading”이라는 모토를 띤 비영리 강연회로,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TED의 대표인 크리스 앤더슨은 ‘사람들은 연설을 함으로써 지식과 통찰을 나누며 서로의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강연을 지구인 전체가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전례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라고 하였다. 또한 ‘명석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아이디어는 결국 인류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인류는 오히려 지식의 나눔을 통해 발전해 왔다. 강연은 강연자와 청중 모두에게,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6) 국내의 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생명과학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고려인삼학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육종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패류학회

대한병리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인간프로테오믹스  
대한수의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응용생화학학회  
한국축산경영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균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원예학회  
한국작물학회  
한국환경농학회  
한국해양학회

### 3. 탐구 결과

세종시 인구 유치 및 기존 교육 사회 개혁을 위해 자료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총 세가지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 1) 학술 발표 대회를 세종시에서 유치한다. 각종 학회에서 여는 포럼, 심포지엄, 발표 대회를 세종시에 유치함으로 세종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술 발표대회를 세종시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이 개최를 한다면 외부인들은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지식인들이 모이는 품격 있는 도시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닌 학회나 학술발표대회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공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교육 명품도시로 발전되어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기대 해 볼 수 있으며, 학술 발표대회와 관련된 직종이나, 학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흡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2) 두 번째로 학계의 최신연구 내용 및 고급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재능 기부 강연 행사 개최를 통하여 세종시 만의 특별한 재능기부 문화를 창출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학계의 최신 연구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범위이다. 하지만 이를 쉽게 전달하는 재능 기부 강연 행사를 통하여 일반 대중들이 수학 및 과학적 연구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으며 학술의 장벽을 낮추어 교육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능 기부 강연자는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비전문가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나, 세종과학예술평재학교 학생 등 세종시로부터 교육적, 재정적 특혜를 받는 인물들이 더욱 나서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재능 기부 강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 함으로서 세종시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를 지닌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한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나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이트에 올린다. 그리고 이 영상들 중 조회수와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강의 영상들을 선정하고 그 영상들의 강연자들은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한다. 이 때 강연자는 강연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우며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발표한다. 강연을 촬영하여 참석한 사람 외에 더 많은 이들이 시청하고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일년에 두번, 발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강연 내용을 더 널리 알리고, 교육 방향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정기 강연회 장소로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 3)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이 함께하는 수과학 융합 축제를 개최하자. 세종 시민이 다함께 참여를 하는 수과학 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종시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사회를 선도할 만한 수과학 인재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과학 호기심을 키워 줄 수 있으며 이로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과학 융합 축제의 무대로는 세종시민의 휴식과 문화 행사를 담당하는 세종호수공원이 적합할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 가. 정책 요약

- 1) 세종시에서 국내 학회들에 후원을 한다. 이들 단체의 학술대회를 세종시에서 주최한다.
- 2) 칸 아카데미와 TED 사례를 응용하여 세종시에서 정기적인 재능 기부 강연 행사를 연다. 이 재능 기부 행사에서는 학계의 최신 연구 또는 고급 지식을 주제로 한다.
- 3) 위의 행사들을 세종시민 전체의 축제로 발전시켜 수과학 융합 축제를 진행한다. 이 축제에는 호응이 좋았던 재능 기부 강연을 선발해서 다시 강연하고, 세종시민이 전문 지식을 학습한 후 창출해낸 아이디어 또는 산출물을 공유한다.

##### 나. 제한점

- 1) 짧은 탐사 및 연구, 산출물 작성 기간으로 인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근거가 간접적인 방향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종시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외에도 세종시민과의 직접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파악한 세종 시민의 성향을 더 잘 반영시켜, 더욱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수과학 융합 축제의 콘텐츠가 부족한 면이 있다. 만약 축제 계획 시 콘텐츠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 다. 추후 활동

- 1) 세종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연 및 학술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이러한 행사에 대한 세종시민의 생각을 파악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세종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연 및 학술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연관점 혹은 차별점을 찾는다.



- 3) 국내에 이와 비슷한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의 장단점 및 사람들의 참여도를 분석하여 본 정책에 적용한다.

#### 라. 기대 효과

- 1) 학계의 지성인들간 네트워크가 세종시에 구축될 수 있다.
- 2) 전문 지식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창출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및 지성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효과적인 정보접근의 위해 세종시로 유입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종시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3) 세종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통해 세종시의 모토 중 하나인 ‘품격 있는 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
- 4) 전문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장벽을 낮추어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5) 교육 명품도시로 발전한 세종시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수도권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수도권의 인구 유입량을 늘릴 수 있다.
- 6) 아름다운 디자인의 국립세종도서관이나 세종 호수공원 등의 훌륭한 물질적 자원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
- 7) 세종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지식을 접할 기회를 주어 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성장시켜 곧 세종시 및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양성의 효과를 지닌다.
- 8)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 모든 시민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 5. 활동 후기

- 1) 정채윤 : 선진국은 환경미화원도 교양 현대물리 서적을 읽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이 전문지식에 대해 지나치게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현상에 이전부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리고 전부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으로서 세종시 및 행복도시의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중첩되어 본 연구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본교는 지속적으로 3I, TEDx등의 강연회와 영재원, 멘토링 등의 지식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므로, 본 연구 내용이 실현되지는 못하더라도 본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2) 주양현: 예전부터 세종시에 1인가구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이번 탐사 활동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세종시와 관련되어서 계획도시는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어 매우 신기하였다. 이번 탐사는 세종시 상황에 최적의 해결책을 내려고 처음으로 내가 살고있는 세종시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기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시를 과학의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3) 최하윤: 본 연구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무엇보다 연구주제의 선정이었다. 세종시가 가진 최대의 강점으로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종시의 품격있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지식의 대중화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이기, 세종시가 교육도시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의 대중화와 배포를 세종시에서 실현할 계획을 구현하게 되었다. 이번 탐사에서는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설계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기관들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계획이 실현되면 세종시가 품격있는 지적도시로 거듭나 수준높은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된 환경에서 교육과 산업이 둘다 발전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 4) 이호성: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는 계획했던 것에 비해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 등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시설의 부족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유치원을 갈려면 옆 동네 유치원을 가야 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시설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고려해보았을 때 인구 유입이 적은 것 또한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인구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학술 논문발표회 배치나, 칸 아카데미 등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했지만, 세종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장려하고 개발한다면 인구 유입에 있어서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5) 조운상: 본교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문 자연 탐사를 하면서 인구가 실제로 적다는 것을 알았다.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교육 시설이 부족하였다. 교육 시설 부족에 대해 조사하면서 대학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등 교육 시설도 해결해야 세종시에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종시 정부도 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먼저 연구 시설부터 들여야 자연스럽게 지식인이 들어오고 조금씩 일반인들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 3일 동안 발표 준비까지 해야 해서 조금 아쉽다.
- 6) 최성준: 국립세종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세종시의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외에도, 세종시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사례처럼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시간 부족으로 처음에 계획한 만큼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노력한 결과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6. 참고 문헌

강남의 탄생 - 한종수, 강희용  
 테드 토크 - 크리스 앤더슨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 살만 칸  
 희망특별시 세종 가는길 - 김세종  
 2012~2015 행정중심복합도시백서

국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_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적발굴 2014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ultural sites excavation 2014)\_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현주, 지식 대중화와 전문용어 , 프랑스 학회, 2016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 재생방안

『에르끼 아호의 핀란드 교육개혁 보고서 우리 교육의 희망과 대안을 찾아』 강수돌, 에르끼 아호, 까리 핏까넨, 파시 살베리, 심상정 저

독일 교육 왜 강한가?\_박성희

도시 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 정책 수립 방향\_이왕건, 박세훈, 박정은, 송지은